

사진: 앤드류 빌링턴

셰익스피어 희곡을 영국 북부 역양으로 선보이는 극단, 노던 브로드사이드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뜻대로 하세요>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치를 통해 텍스트 속 젠더 유동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캐스팅과 의상에서 다양성을 고려했으며, 대본의 경우 일부 단어를 바꿔 극 전체를 색다르게 재해석하기도 했다. 주인공 로잘린드 역에는 논바이너리 배우 EM 윌리엄스가 활약한다. 이에 배우 본인 뿐만 아니라 극중 배역인 로잘린드 역시 인칭 대명사로 ‘그녀’ 대신 ‘그들’을 사용한다. 터치스톤(조 모로우 분)은 드래그 아티스트로 새로이 해석되었다. 원작을 자유분방하게 넘나드는 의상과 대본, 그리고 관객들과 즉흥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프레드릭 공작과 첫째 공작 역에는 알리 개이드먼이 매끄러운 일인 이역 연기를 선보인다.

사진: 에이다 (클레어 해켓) 사진: 앤드류 빌링턴

공연에서 눈여겨 볼 인물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애덤(Adam)의 여성 버전인 에이다(Ada)이다. 원문에서는 극 중간에 애덤의 행방이 묘연해지지만, 노던 브로드사이드 공연은 에이다의 죽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첫째 공작이 코트로 그녀의 얼굴을 덮어주고, 제이콥스가 성호를 그은 뒤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작은 의식이지만 에이다의 죽음에 확실히 경의를 표하는 셈이다. 이에 무대 위 인물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 또한 그녀의 따뜻한 성품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사진: 로잘린드 (EM 윌리엄스), 실리아 (이소벨 카워드) 사진: 앤드류 빌링턴

아덴 숲은 등장인물들이 여성과 남성, 동성애와 이성애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공연은 특히 로잘린드와 실리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둘은 극 초반 궁정에서부터 서로를 쓰다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이때 로잘린드는 과장스러운 정도의 ‘여성스러운’ 옷을, 실리아(이소벨 카워드 분)는 ‘남성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는데 (사진 참조), 때문에 의상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은 이성애적 관계로 보인다. 또 주목할 만한 건, 실리아가 프레드릭 공작에게 자신과 로잘린드가 ‘함께 잠을 잤다’고 이야기한 뒤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대목이다. 무대 위 세 인물도, 지켜보는 관객도 긴장감에 잠시 숨을 참게 되는 순간이다. 이뿐이라. 로잘린드와 올랜도가 결혼 예행 연습을 하고 입을 맞추는 동안에도 실리아는 연신 고통스러워한다. 눈물을 닦고 흐느끼다가 결국에는 로잘린드에게 불만을 털어놓기에 이른다. 물론 극은 셰익스피어의 각본대로 흘러가지만, 관객들은 각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된다. 만약 로잘린드와 실리아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더라면 극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사진: 앤드류 빌링턴

이처럼 노던 브로드사이드의 <뜻대로 하세요>는 젠더, 섹슈얼리티, 정체성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지만, 셰익스피어 희극답게 공연은 전반적으로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연출된다. 올봄 영국에서 볼만한 공연을 찾고 있다면,形形色색의 리본이 흩날리는 곳으로 이들을 만나러 가보자. 시계 없는 숲 속에서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될 것이다.